



# 임베디드 기술로 세계를 업그레이드 한다!

MDS테크놀로지(주) 김현철 대표

〈나는 2008년 매출 1,000억 임베디드SW 세계 TOP 10 달성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김현철 대표의 집무실. 책상 옆엔 신문지만한 수도권 지도가 있고 각기 다른 곳에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18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사는 곳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아침마다 이것을 보며 세계를 향한 도전을 새롭게 한다. 임베디드 기술 최고 기업 'MDS테크놀로지' 를 이끄는 김현철 대표를 만나본다.

대학 졸업 후 임베디드 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 김 대표. 잦은 지방 출장과 휴일 근무까지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분야에 대한 매력을 더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천직'이란 말이 실감난다. 이후 1994년 직원 2명과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MDS(Microprocessor Development System)업체가 되고자 회사명을 '한국MDS'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MDS 테크놀로지(이하 MDS)의 모체다.

## MDS테크놀로지엔 SWAN이 있다?

“우리 회사 부사장이요.” 존경하는 인물을 문자 시원하게 대답한다. 의외라는 표정에, “우리 회사 1대 스완SWAN이에요”라는 더 엉뚱한 대답. Smart, Work-hardened, Ambitious, Nice의 머릿글자를 딴 스완은 MDS 성장의 역할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김 대표와 함께한 이상현 부사장이 2005년 1대 스완으로 선정되었고 2대 스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1대 역할 모델이라고 해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했을 때 함께 일하는 동료로 말할 수 있는 CEO는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 어서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김 대표의 소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에도 담겨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이 마음은 MDS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표현된다.

## 자전거 타는 CEO

MDS 공간엔 이름이 붙어있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실 등에 붙여진 이름은 국내외 유명 인사 이름이나 대학교 이름에서 가져왔다. “MDS가 추구하는 ‘Fun’ 경영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김대표의 설명처럼 호암, 신사임당,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뉴턴, 에디슨 등 MDS인이 좋아하거나 닮고 싶은 인물 이름이 방마다 자리잡고 있다. 이 중 ‘테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 카페의 커피 판매금 전액은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매칭 펀드로 기부하여 지금까지 북한 용천동포 돕기, 결연 아동 후원, 독거노인 돕기 등에 사용하였다. 청소년 진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 보수와 청소를 돕거나 복지시설의 실업계 고교생들을 회사에 초청하여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활동은 경영에 있어 ‘인간 존중, 정직함, 도덕성’ 세 가치를 중요시하는 김 대표의 생각에 근거한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그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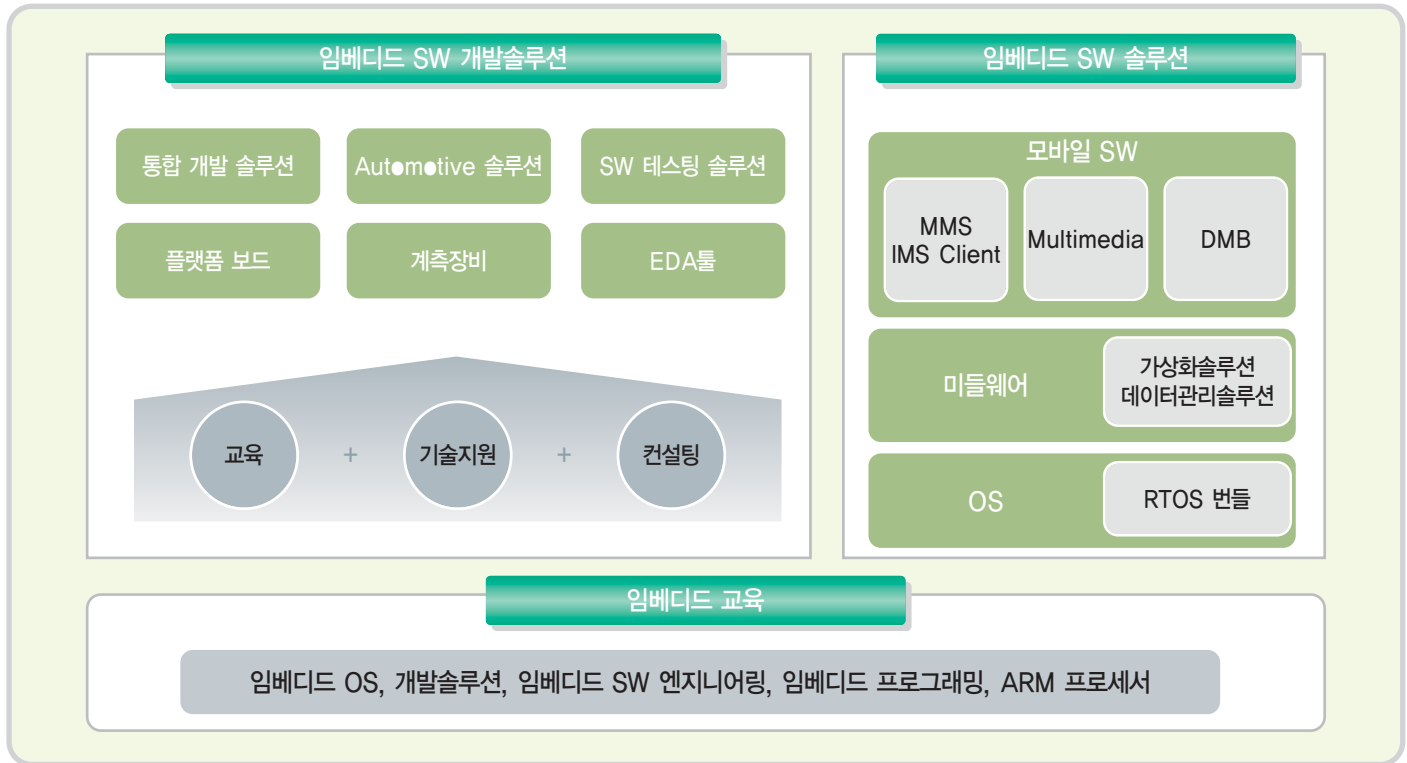
고 말하는 김 대표의 말에 소탈함이 묻어난다. 그는 자동차를 버리고 아침마다 1시간 넘는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로 출근하는 CEO로도 유명하다. 회사와 별도로 MDS는 국내 유일의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MDS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축적한 세계 수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현직 개발자 중심의 역량 있는 강사진이 ‘솔루션 제시형의 실무 지식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간 총 교육인원은 7,000명 이상, 개설 과정은 258 차수에 달하며, 연간 총 교육시간은 12,000시간 이상이다.

##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MDS테크놀로지

2004년 ‘한국MDS’에서 지금의 ‘MDS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 구로디지털단지로 사옥을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곳으로 온 후 무엇보다 고객들이나 협력업체들과 거리가 단축되어 보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점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전 후의 변화를 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재무적으로도 더욱 안정된 건실한 회사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MDS테크놀로지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SKT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800여 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창립 14주년이 되는 내년, 매출 1000억을 달성하여 세계 10대 임베디드 SW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하는 MDS테크는 이를 위해 그동안 확보한 자원과 기술력 배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임베디드 솔루션 대표 업체에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넓은 창 가득 하늘이 보이는 사내 카페 ‘테라’에서 김 대표는 신중하게 회사의 미래를 그린다. 이를 위해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김 대표. 9월 어느 아침 길에서 만나는 들쭉처럼 세계 어디서나 MDS의 이름을 만날 날을 기대한다.

# Venture portfolio

## ■ MDS테크놀로지의 전체 사업 영역



## ■ MDS테크놀로지의 주요 제품



### ● TRACE32

-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표준 디버깅 솔루션
- 주요 칩 벤더들이 추천하는 개발 솔루션 (가장 많은 칩셋 지원 - 약 300개)
- 다양한 최신 개발환경 지원
-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개발 솔루션
- 주요 고객: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현대자동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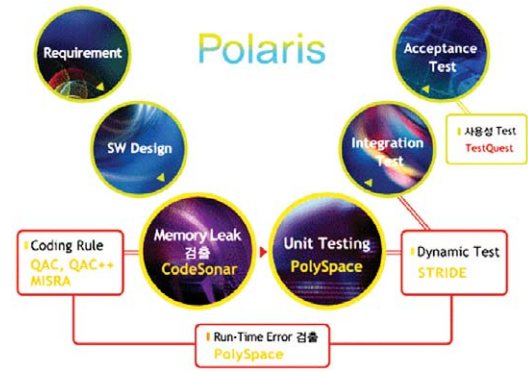
### ● dSPACE

- ECU(전자제어장치) 개발을 위한 토탈 솔루션
- 자동차 및 산업기기용 전자제어장치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
- 모델 기반의 설계에서 개발 및 검증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
- 실시간 시험을 보장하는 Real-time kernel 및 Experiment Software
- 차량용 실차 시험 환경에 적합하며 다양한 센서/액추에이터 지원
- 주요 고객: 현대 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 및 관련 부품업체



## ● Polaris

- SW 디자인 단계부터 사용성 시험까지 SW 테스트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
- 간단한 오류에서 Run-time error까지 단계별 SW 버그 검출
- 개발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Memory Leak 검출
- 각 단계별로 개발자가 작성한 Code의 Quality를 다양한 항모경로 측정
- 사람이 하기 힘든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효과 극대화



## ● 멀티미디어 메시징 솔루션(MMS)

- 모바일 단말 기반의 통합 메시징 Client 프로그램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하는 모든 유형의 메시징 기능을 단일 Client Application으로 통합
- SMS, EMS, MMS Client 기능 통합
- 미리 정의된 메시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이미지 편집이 가능해 편리한 메시지 작성 가능
-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 지원
-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기반의 메시지 작성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메시지 작성 가능

## ● NEOS™ RTOS NEOS

-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를 위한 작고 빠른 실시간 운영체제
- Kernel, File System, Network Stack, USB, GUI 등의 미들웨어
- 최소화된 메모리 요구량
- 강력한 실시간 성능
- 편리한 개발 환경
- 컴포넌트 기반 유연한 동적 확장
- 계층화된 편리한 포팅 구조
- 로열티없는 One-time License

# Mini Interview

## 궁금하다! MDS테크놀로지(주) 브레인

### MS사업부 기술개발팀 조정식 부장



Q 말고 계신 업무는

A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 솔루션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MDS테크놀로지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회사 내에서의 커리어 패스를 설명해 주세요

A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벤처 회사에 근무했는데, MDS테크놀로지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근무하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작년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단말서비스 시험자동화 시스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계기로 테스트 솔루션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Q 담당부서에서 최근 역점을 두시는 사업 혹은 서비스가 있다면

A 얼마 전에 출시한 C/C++ 소스코드 분석 테스트 솔루션인 'CodeSonar'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odeSonar'는 기존의 테스트 솔루션들과는 달리 C 언어의 포인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완벽한 추적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스 코드의 변경이 나 추가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입니다.

Q MDS테크놀로지만의 특이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면

A 저희 회사는 가족적이고 즐거운 기업문화를 강조해 왔고 전체 인원이 180명

정도 되는 지금도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설날·추석 장보기 행사, 매월 전 직원이 모여 화합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M+Day 행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 본인만의 부하직원관리, 팀 문화 만들기의 노하우가 있다면

A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업무 위임을 하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팀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어느 때가 가장 보람있으신지요

A 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을 곤경에 빠트린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저희 테스트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테스트 컨설턴트가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나중에 제품 리콜 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분들을 만나면 다소 답답함을 느낍니다.

Q 올 하반기 업무적인 포부, 개인적인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우리나라는 모바일 단말의 생산·판매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아직 모바일 단말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테스트 솔루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해 볼 예정입니다.